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지병규* · 김성환** · 김도형***

<요 약>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인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3월(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전과 이후 조세순응(조세회피,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기간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 · 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 · 2017년(직후 2개연도)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는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업무무관비용, 가공경비, 가공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해온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조세순응, 조세회피, 신고소득률

* 세무법인가감 세무사, nanjbk@naver.com, 주저자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sunh@kw.ac.kr, 공동저자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dhkim@kw.ac.kr, 교신저자

I. 서 론

국세청은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법인세신고 이전에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법인세신고 이후에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했던 세무자료를 사후에 검증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5년의 주기로 시행되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법에 어긋나게 신고한 내용을 적발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징한다.

반면,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이 2016년 3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법인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제공된다.¹⁾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자료〉

- 연도별 신고상황 : 최근 3년간 해당기업과 동일업종 평균 신고내역
- 신고시 참고할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 수취현황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 맞춤형 안내사항, 절세 팁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자료 가운데 연도별 신고상황은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 평균 신고소득률을 함께 제시해 주는데 해당기업이 동일업종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준점을 제시하여 평균 미만인 기업이 더욱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해 주길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지출증빙 수취현황은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사용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가공경비나 매출누락 등을 반영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사전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신고소득

1) 국세청홈텍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기업의 조세순응(조세회피, 신고소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과 후의 조세회피 및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2016년 3월초(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새롭게 제공되었다. 하지만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 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2015년이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이고 법인세 신고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법인사업자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결산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전후 변화는 2015년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분석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 세무조사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시행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관련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정아영·심태섭(2017)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자료 중 업종별 평균신고소득률 공개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는 실험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의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제도 소개 및 선행연구를 기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제도 소개 및 선행연구

1.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2016년 3월(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법인사업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료 가운데 연도별 신고상황 및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은 해당기업과 동일업종 평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어 해당기업이 동일업종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²⁾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액 및 매입액을 제시해 주어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산 분석된 자료를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업무무관업소이용, 개인적치료, 해외사용액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지출증빙 수취현황은 수취대상금액, 증빙수취금액, 차이금액을 제시한다.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은 해당기업이 신고 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내용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부재하다. 따라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신고소득률

김성우 등(2017)은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³⁾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으로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기 전의 신고소득률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한 후의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가공 또는 허위로 계상하면 사업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성실신고를 유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신고소득률

정아영 · 심태섭(2017)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동종업계 평균소득률을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을 통해 실험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실제소득률이 동종업계 평균소득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소득률보다 낮게 신고하고 실제소득률이 동종업계 평균소득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소득률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

2) 첨부한 <부록>은 A기업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자료이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

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사업자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실제소득물과는 다른 소득물로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납세자들이 본인의 실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제시한 동종업계 평균에 회귀하려는 속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신고소득률과 조세회피

신고소득률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형배·전규안(2016), 나철호 등(2016)이 있다. 이형배·전규안(2016)은 신고소득률 차이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는 증가하고, 직전연도 신고소득률 차이가 클수록 조세회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철호 등(2016)은 국세청이 법인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분석 자료 중 조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 특성을 가진 항목을 추출하여 이 항목들이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사용하여 추정기업 예측모형을 만든 후 이 모형이 추정기업과 비추정기업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기초 및 기말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등이 조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보금액,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신고소득률, 재고금액 차이 등이 추정기업 예측모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가설 설정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것이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최근 3년간 해당기업과 동일업종평균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해당기업과 동일업종평균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 수취현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사항, 절세 팁(Tip) 등이다.

제공자료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신변잡화구입(의료용기구, 화장품, 예술품 등 구입액), 가정용품구입, 업무무관업소이용(스포츠 교육기관, 수의업, 오락장 등 사용액), 개인적치료(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사용액), 해외사용액으로 구분되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점검하여 업무무관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지출증빙 수취현황은 수취대상금액, 증빙수취금액, 차이금액을 나타내어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

4) 신고소득률 차이=해당기업 신고소득률-동일업종 평균 신고소득률

실이 있는 경우 안내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해당기업과 동일업종평균 법인세 신고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신고내역으로는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소득률 등이 제시된다.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득률이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법인신고 성실도를 조사하여 불성실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법인신고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득률이 자주 사용된다.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 소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는 가공경비나 매출누락 등이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해당기업의 소득률이 동일업종평균 소득률보다 낮은 법인은 평균미달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음 법인세 신고시 소득률을 조금 더 올리고자 할 것이다.

결국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비용, 가공경비, 가공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신고내역에 동일업종평균 수치를 함께 제시하여 암묵적인 기준점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영향으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법인의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는 감소한다.

가설 1-2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신고소득률은 증가한다.

IV.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음(-)이 아닌 기업⁶⁾
- (3) 본 연구에 필요한 재무데이터가 모두 있는 기업

5) <신고성실도 소득률과 세무조사> 글로벌이코노믹 2016.12.19.

6) 연구설계시 조세회피 측정치를 현금유효법인세율(=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유효법인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로 다양하게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경우에 조세회피 측정치인 현금유효법인세율과 법인세비용유효법인세율 계산시 분모가 (-)가 되면 측정치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연구(이형배와 전규안, 2016 ; 안숙찬, 2017)와 동일하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현금유효법인세율과 법인세비용유효법인세율 측정치에서 관심변수의 회귀계수값의 방향성은 예상대로 나타났으나 t-value 값이 유의하지 않아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2016년 3월초 부터 새롭게 제공되었다. 하지만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31일 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2015년은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이고 법인세 신고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법인사업자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결산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전후 변화를 살펴볼 때 2015년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의 전후 변화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처음 제공된 이후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4년(직전연도)과 2017년(직후 2차연도)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의 전후 변화를 확장하여 살펴보기 위해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과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을 비교 분석한다.

	2013년	2014년 (직전연도)	2015년 (제외)	2016년 (직후 1차연도)	2017년 (직후 2차연도)
(1)					
(2)					
(3)					

<표 1>은 실증연구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모두 충족하여 회귀분석에 이용된 최종 표본을 분석기간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1> 최종 표본

구분	2014년 vs 2016년	2014년 vs 2017년	2013년·2014년 vs 2016년·2017년
2013년			998
2014년	1,045	1,045	1,045
2015년			
2016년	1,185		1,185
2017년		1,169	1,169
계	2,230	2,214	4,397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을 전후하여 기업의 조세순응(조세회피, 신고소득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AVOID(IR)_t = \alpha + \beta_1 SERVICE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ROA_t + \beta_5 CI_t + \beta_6 OCF_t + \beta_7 FOR_t + \beta_8 \sum IND_t + \epsilon$$

AVOID : 조세회피,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

IR : 신고소득률

IR1 : 각사업연도소득률(=각사업연도소득금액/매출액)

IR2 :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금액/매출액)

IR3 :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SERVICE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더미

SERVICE1 : 2014년(직전연도)이면 0, 2016년(직후 1차연도)이면 1

SERVICE2 : 2014년(직전연도)이면 0, 2017년(직후 2차연도)이면 1

SERVICE3 : 2013년 · 2014년(직전 2개연도)이면 0, 2016년 · 2017년(직후 2개연도)이면 1

SIZE : 총자산 자연로그

LEV : 총부채/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CI : 유형자산/총자산

OCF :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FOR : 외국인투자지분율

IND : 산업 더미

ϵ : 잔차항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AVOID와 IR은 각각 조세회피와 신고소득률을 의미하며 관심변수인 SERVICE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업이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가 감소하면 β_1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이고 신고소득률이 증가하면 β_1 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3. 변수측정

가. 조세회피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를 대용치로 사용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에서 총발생액이 설명 못하는 부분을 조세회피로 추정하였다. 산업별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산출하고 그 차이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차를 조세

회피의 대응치로 이용한다. 산업별 분류기준은 표준산업 중 중분류 기준을 이용한다.

$$BTD = \beta_1 TA + \varepsilon$$

BTD=(회계이익-과세소득)/총자산

회계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과세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추정치=법인세부담액7)/법인세율

TA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ε =잔차, 조세회피측정치

나. 신고소득률

소득률은 ‘기업이 번 돈’ 중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한다. 즉 소득(이익, 마진)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소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신고소득률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했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고소득률을 3가지(각사업연도소득률,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 당기순이익률)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각사업연도소득률과 당기순이익률은 선행연구⁸⁾에서 사용한 측정치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은 법인세 계산시 세무조정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수치로 소득률을 산정한 값보다 적절한 측정치라 판단되어 사용한다.

(1) 각사업연도소득률 : 각사업연도소득금액9)/매출액

(2)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매출액

(3) 당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기업규모(SIZE), 총자산수익률(ROA), 부채비율(LEV), 영업활동현금흐름(OCF), 유형자산비율(CI), 외국인투자지분율(FOR)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했다. 기업규모가 크면 조세회피를 이용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유인이 증가한다. 반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조세회피 유인이

7) 법인세부담액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없어서 감사보고서상 법인세비용 주석 자료를 모두 검색해 수집했다.

8) 이형배와 전규안(2016), 나철호 등(2016)

9) 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공개자료가 없으므로 전규안과 김철환(2008), 이형배와 전규안(2016), 나철호 등(2016)의 방식으로 [법인세부담액/법인세율]로 추정하였다.

감소할 수도 있다(Stickney and McGee, 1982 ; Gupta and Newberry, 1997). 총자산수익률(ROA)은 당기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이 증가함으로 조세회피 유인도 증가할 것이다(Chen et al., 2010). 부채비율(LEV)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회계이익이 줄어들어 조세부담이 감소함으로 조세회피 유인도 감소할 것이다(Graham and Tucker, 2006). 영업활동현금흐름(OCF)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증가하면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유인도 늘어날 것이다. 유형자산비율(CI)은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으면 감가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유인이 증가할 것이다(Stickney and McGee, 1982). 외국인지분율(FOR)은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에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게 되어 조세회피 유인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어 이를 포함하였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신고소득률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조세회피 경향이 크면 적정히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어 신고소득률이 낮아지고 조세회피 경향이 작다면 결국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어 신고소득률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통제변수를 신고소득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그 효과는 조세회피와 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¹⁰⁾ 이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AVOID)는 0.0042의 평균값을, 신고소득률 측정치(IR1, IR2, IR3)는 0.2304, 0.1199, 0.1039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더미변수인 SERVICE의 평균값은 0.5314로 2016년(직후 1차연도)의 표본이 2014년(직전연도)의 표본보다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SIZE) 평균값은 19.0983, 부채비율(LEV) 평균값은 0.3487, 총자산수익률(ROA) 평균값은 0.0537, 유형자산비율(CI) 평균값은 0.3899, 영업활동현금흐름(OCF) 평균값은 0.0816, 외국인지분율 평균값은 0.0759로 나타났다.

10) 지면관계상 분석기간에 대한 모든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만 제시하였다.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 값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 기술통계량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 (N=2,230)					
Variable	Mean	Std. Div.	Min	Median	Max
AVOID	0.0042	0.1193	-0.4155	0.0229	0.2612
IR1	0.2313	0.3432	-0.0009	0.1262	2.4626
IR2	0.1199	0.1723	0.0019	0.0693	1.1698
IR3	0.1039	0.1667	-0.0066	0.0568	1.1762
SERVICE	0.5314	0.4991	0.0000	1.0000	1.0000
SIZE	19.0983	1.3227	16.7496	18.8719	23.6346
LEV	0.3487	0.1866	0.0231	0.3362	0.7894
ROA	0.0537	0.0474	-0.0044	0.0420	0.2505
CI	0.3899	0.2994	0.0045	0.3446	1.7309
OCF	0.0816	0.0898	-0.1610	0.0755	0.3870
FOR	0.0759	0.1099	0.0000	0.0275	0.5291

주1) AVOID :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 IR1 : 각사업연도소득률(=각사업연도소득금액/매출액), IR2 :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금액/매출액), IR3 :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SERVICE : 2014년(직전연도)이면 0, 2016년(직후 1차연도)이면 1, SIZE : 총자산 자연로그, LEV : 총부채/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CI : 유형자산/총자산, OCF :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FOR : 외국인투자지분율

주2)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상위, 하위 1% 값을 극단치로 간주하고 이를 조정(Winsorize)하였다.

2. 상관관계

<표 3>은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에 사용된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이다.¹¹⁾ 이를 살펴보면 신고소득률을 나타내는 IR1, IR2, IR3는 서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0.5629, 0.5352, 0.9533)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변수들이 신고소득률을 유사하게 추정하고 있어 신고소득률 측정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SERVICE)와 조세회피(AVOID)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SERVICE)와 신고소득률(IR1, IR2, IR3)간에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적이진 않았다.

11) 지면관계상 분석기간 각각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만 제시하였다. 2014년(직전연도)과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과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에 사용된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 피어슨 상관관계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 (N=2,230)											
변수	AVOID	IR1	IR2	IR3	SERVICE	SIZE	LEV	ROA	CI	OCF	FOR
AVOID	1										
IR1	-0.5144***	1									
IR2	-0.0171	0.5629***	1								
IR3	0.0076	0.5352***	0.9533***	1							
SERVICE	-0.0316	0.0186	0.0314	0.0319	1						
SIZE	0.2074***	-0.0956***	0.0721***	0.0605***	0.0447***	1					
LEV	0.1549***	-0.2924***	-0.3060***	-0.2845***	-0.0180	0.2057***	1				
ROA	-0.1380***	0.2457***	0.4351***	0.4451***	0.0016	-0.1329***	-0.2453***	1			
CI	0.0805***	0.0050	0.1297***	0.1350***	0.0021	0.2770***	0.1061***	-0.1952***	1		
OCF	-0.0706***	0.1469***	0.2309***	0.2152***	0.0037	0.0993***	-0.1525***	0.3089***	0.3041***	1	
FOR	0.0810***	0.0275	0.1108***	0.0930***	0.0168	0.4983***	-0.0862***	0.1226***	0.0322	0.1987***	1

주) *, **, *** :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독립변수들 사이에서 일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모든 회귀분석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VIF가 모두 2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실증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단변량 분석 결과

<표 4>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전과 이후로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간에 조세회피와 신고소득률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t검정 결과이다. Panel A는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를, Panel B는 2014년(직전연도)과 2017년(직후 2차연도)를, Panel C는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과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Panel A에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AVOID)의 평균값은 감소하였고 신고소득률(IR1, IR2, IR3)의 평균값은 증가하였으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Panel B에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AVOID)의 평균값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신고소득률(IR1, IR2, IR3)의 평균값은 IR2, IR3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Panel C에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AVOID)의 평균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고소득률(IR1, IR2, IR3)의 평균값은 IR2, IR3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Panel A :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							
변수	2014년(N=1,045)			2016년(N=1,185)			차이분석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t-value
AVOID	0.0082	0.0278	0.1290	0.0006	0.0207	0.1101	1.48
IR1	0.2245	0.1237	0.3313	0.2373	0.1299	0.3533	-0.88
IR2	0.1142	0.0641	0.1708	0.1250	0.0739	0.1735	-1.48
IR3	0.0982	0.0524	0.1618	0.1089	0.0619	0.1708	-1.51
SIZE	19.0353	18.8016	1.3491	19.1539	18.9457	1.2970	-2.11**
LEV	0.3523	0.3314	0.1891	0.3456	0.3379	0.1844	0.85
ROA	0.0537	0.0431	0.0474	0.0538	0.0419	0.0473	-0.08
CI	0.3893	0.3555	0.2933	0.3905	0.3395	0.3048	-0.10
OCF	0.0812	0.0729	0.0902	0.0819	0.0784	0.0895	-0.18
FOR	0.0740	0.0235	0.1095	0.0776	0.0302	0.1103	-0.79

〈표 4〉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계속)

Panel B : 2014년(직전연도)과 2017년(직후 2차연도)							
변수	2014년(N=1,045)			2017년(N=1,169)			차이분석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t-value
AVOID	0.0082	0.0278	0.1290	-0.0014	0.0171	0.1038	1.91*
IR1	0.2245	0.1237	0.3313	0.2371	0.1248	0.3837	-0.83
IR2	0.1142	0.0641	0.1708	0.1282	0.0699	0.1868	-1.84*
IR3	0.0982	0.0524	0.1618	0.1123	0.0570	0.1861	-1.91*
SIZE	19.0353	18.8016	1.3491	19.2535	19.0195	1.3049	-3.87***
LEV	0.3523	0.3314	0.1891	0.3347	0.3257	0.1855	2.22**
ROA	0.0537	0.0431	0.0474	0.0561	0.0404	0.0522	-1.15
CI	0.3893	0.3555	0.2933	0.3922	0.3431	0.3216	-0.23
OCF	0.0812	0.0729	0.0902	0.0721	0.0636	0.0936	2.31**
FOR	0.0740	0.0235	0.1095	0.0838	0.0340	0.1136	-2.06**
Panel C : 2013년 · 2014년(직전 2개연도)과 2016년 · 2017년(직후 2개연도)							
변수	2013년 · 2014년(N=2,043)			2016년 · 2017년(N=2,354)			차이분석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t-value
AVOID	0.0044	0.0259	0.1240	-0.0004	0.0182	0.1070	1.36
IR1	0.2225	0.1203	0.3292	0.2372	0.1274	0.3686	-1.40
IR2	0.1098	0.0635	0.1620	0.1266	0.0717	0.1802	-3.27***
IR3	0.0938	0.0514	0.1525	0.1106	0.0591	0.1785	-3.35***
SIZE	19.0352	18.7932	1.3302	19.2033	18.9778	1.3016	-4.23***
LEV	0.3543	0.3436	0.1856	0.3402	0.3339	0.1850	2.53**
ROA	0.0530	0.0415	0.0459	0.0549	0.0409	0.0498	-1.36
CI	0.3905	0.3510	0.2961	0.3913	0.3410	0.3132	-0.09
OCF	0.0848	0.0741	0.0894	0.0770	0.0702	0.0917	2.84***
FOR	0.0710	0.0210	0.1098	0.0807	0.0318	0.1120	-2.90***

주) *, **, *** :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4. 다변량 분석 결과

다변량 분석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조세회피,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신고소득률로 구

분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각각의 분석에서 Panel A는 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를, Panel B는 2014년(직전연도)과 2017년(직후 2차연도)를, Panel C는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과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를 나타낸다.

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조세회피

<표 5>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관심변수인 SERVICE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모두(Panel A, Panel B, Panel C)에서 각각 10%, 5%,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라는 가설 1-1을 지지되었다. 이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조세회피 회귀분석 결과

$$AVOID_t = \alpha + \beta_1 SERVICE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ROA_t + \beta_5 CI_t + \beta_6 OCF_t + \beta_7 FOR_t + \beta_8 \sum IND_t + \epsilon$$

변 수	분석기간					
	Panel A (2014년과 2016년)		Panel B (2014년과 2017년)		Panel C (2013년·2014년과 2016년·2017년)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0.3534	-7.66***	-0.3841	-8.57***	-0.3791	-12.00***
SERVICE	-0.0091	-1.86*	-0.0118	-2.44**	-0.0067	-1.98**
SIZE	0.0176	7.18***	0.0189	7.92***	0.0185	11.04***
LEV	0.0680	4.58***	0.0724	4.95***	0.0758	7.37***
ROA	-0.1695	-2.87***	-0.1535	-2.86***	-0.1819	-4.59***
CI	0.0298	2.84***	0.0202	2.07**	0.0219	3.13***
OCF	-0.0977	-3.03***	-0.0367	-1.21	-0.0598	-2.74***
FOR	0.0337	1.23	0.0073	0.27	0.0214	1.15
산업더미	포 함					
F값	6.75***		6.70***		12.95***	
수정 R ²	0.0785		0.0783		0.0823	
N	2,230		2,214		4,397	

주) *, **, *** :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나.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신고소득률

<표 6>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관심변수인 SERVICE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Panel A(2014년(직전연도)과 2016년(직후 1차연도))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과 당기순이익률 추정치에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지만 Panel B(2014년(직전연도)과 2017년(직후 2차연도))에서는 모든 추정치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전후기간을 2년으로 확장하여 살펴본 Panel C(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과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과 당기순이익률 추정치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인다.

Panel A와 Panel C에서 관심변수(SERVICE)가 대체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신고소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신고소득률은 증가한다는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다만 Panel B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는 것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2년이 경과하여 그 영향이 도입 첫해만큼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신고소득률 회귀분석 결과

$$IR_t = \alpha + \beta_1 SERVICE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ROA_t + \beta_5 CI_t + \beta_6 OCF_t + \beta_7 FOR_t + \beta_8 \sum IND_t + \epsilon$$

Panel A :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

변수	IR(신고소득률)					
	각사업연도소득률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		당기순이익률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0.6800	5.50***	-0.1679	-3.40***	-0.1497	-3.22***
SERVICE	0.0149	1.13	0.0104	1.98**	0.0112	2.26**
SIZE	-0.0231	-3.52***	0.0094	3.59***	0.0071	2.86***
LEV	-0.2898	-7.29***	-0.1192	-7.50***	-0.0874	-5.84***
ROA	1.4619	9.25***	1.7343	27.44***	1.7840	29.98***
CI	0.0142	0.51	0.0739	6.58***	0.0738	6.98***
OCF	0.0686	0.79	-0.0879	-2.55**	-0.1310	-4.03***
FOR	0.0339	0.46	-0.0319	-1.09	-0.0432	-1.56
산업더미	포 함					
F값	17.99***		66.81***		74.19***	
수정 R ²	0.2009		0.4935		0.5200	
N	2,230		2,230		2,230	

<표 6>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와 신고소득률 회귀분석 결과 (계속)

Panel B :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변수	IR(신고소득률)					
	각사업연도소득률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		당기순이익률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0.6838	5.48***	-0.1749	-3.57***	-0.1770	-3.79***
SERVICE	0.0071	0.53	0.0052	0.98	0.0058	1.14
SIZE	-0.0235	-3.54***	0.0115	4.42***	0.0099	3.97***
LEV	-0.3647	-8.95***	-0.1610	-10.05***	-0.1255	-8.23***
ROA	1.8455	12.36***	1.7368	29.60***	1.8744	33.54***
CI	0.0975	3.59***	0.0658	6.16***	0.0763	7.50***
OCF	-0.1585	-1.87*	-0.1372	-4.11***	-0.2170	-6.83***
FOR	0.0012	0.02	-0.0567	-1.94*	-0.0852	-3.06***
산업더미	포 함					
F값	23.52***		78.37***		85.48***	
수정 R ²	0.2514		0.5357		0.5575	
N	2,214		2,214		2,214	

Panel C : 2013년 · 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 · 2017년(직후 2개연도)

변수	IR(신고소득률)					
	각사업연도소득률		법인세비용차감전소득률		당기순이익률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0.6430	7.32***	-0.1537	-4.45***	-0.1529	-4.68***
SERVICE	0.0111	1.18	0.0110	3.00***	0.0113	3.26***
SIZE	-0.0203	-4.35***	0.0099	5.39***	0.0082	4.72***
LEV	-0.3624	-12.66***	-0.1500	-13.33***	-0.1182	-11.10***
ROA	1.6258	14.76***	1.6481	38.07***	1.7711	43.23***
CI	0.0686	3.53***	0.0786	10.03***	0.0826	11.43***
OCF	-0.0411	-0.68	-0.0952	-4.00***	-0.1533	-6.79***
FOR	-0.0165	-0.32	-0.0356	-1.75*	-0.0539	-2.79***
산업더미	포함					
F값	41.81***		138.91***		152.98***	
수정 R ²	0.2345		0.5087		0.5329	
N	4,397		4,397		4,397	

주) *, **, *** :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6년 3월부터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 제공 이전과 이후의 조세순응(조세회피,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실증분석하였다.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 제공되기 시작한 2015년은 제외하고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는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는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증가하였다. 이는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업무무관비용, 가공경비, 가공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일업종평균 소득률’이라는 암묵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여 소득률이 평균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다음 법인세 신고시 소득률을 높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실증분석을 통해 이 제도의 영향을 살펴본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세청의 취지대로 납세자가 조세에 순응하도록 하는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즉, 법인세신고도우미서비스는 기업에게 유용할 정보를 제공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조세 당국의 효율적 조세행정을 위한 정책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우 · 김용수 · 노희천. 2017.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4(3) : 155－190.
- 김성환 · 김태동 · 김도형. 2012. “산업 특성이 회계정보 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7(3) : 273－299.
- 나철호 · 고종권 · 김임현. 2016.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정기업예측모형”. 회계학연구 41(6) : 159－207.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26(1) : 105－135.
- 안숙찬. 2017. “세무조사와 추정세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0(3) : 417－438.
- 이형배 · 전규안. 2016. “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7(1) : 125－160.
- 정아영 · 심태섭. 2017. “국세청의 업종별 평균신고소득률 공개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4(2) : 77－104.
- 국세청 보도자료(2016.2.25.).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 제공”
- 국세청 보도자료(2017.2.23.).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맞춤형 질세 Tip」 제공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신고지원 실시”
- 국세청 보도자료(2018.2.26.).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Chen, M., X. Chen, Q. Cheng, and T. Shevlin(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 41－61.
<https://doi.org/10.1016/j.jfineco.2009.02.003>
- Desai, M., and D. Dharmapala(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https://doi.org/10.1016/j.jfineco.2005.02.002>
- Graham, J., and A. L. Tucker(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 563－594. <https://doi.org/10.1016/j.jfineco.2005.09.002>
- Gupta, S., and K. Newberry(1997),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 : Evidence of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6(1) : 1－34. [https://doi.org/10.1016/S0278-4254\(96\)00055-5](https://doi.org/10.1016/S0278-4254(96)00055-5)
- Stickney, C., and V. McGee(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2) : 125－152. [https://doi.org/10.1016/S0278-4254\(82\)80004-5](https://doi.org/10.1016/S0278-4254(82)80004-5)

The Effect of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on the Tax Compliance

Ji, Byung-Kyu^{*} · Kim, Sung-Hwan^{**} · Kim, Do-Hyeong^{***}

—〈Abstract〉—

The National Tax Service started providing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in march 2016. This service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further strengthening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on the tax compliance.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on the tax compliance(tax avoidance, reported income rate). The sample period includes as follow : 2014(preceding year) and 2016(one year after), 2014 (preceding year) and 2017(two years after), 2013 · 2014(two preceding years) and 2016 · 2017(two years afterward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In other words, tax avoidance decreases and reported income ratio increased after providing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The results imply that the data provided by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effectively prevents corporations from ommitting some portion of their sales. And it helps reduce the overstated expenses such as unrelated expenses, labor costs, and processing cos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policy implication empirically by showing that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of the taxpayer as intend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Key words〉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Reported Income Ratio

* Certified Tax Accountant, Tax Service Corporation Gagam, nanjbk@naver.com,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sunh@kw.ac.kr, Co-author

***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dhkim@kw.ac.kr, Corresponding Author

〈부 록〉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자료 (예시)

2018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

◆ 유의사항

1.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 박병준 (☎ 031-8007-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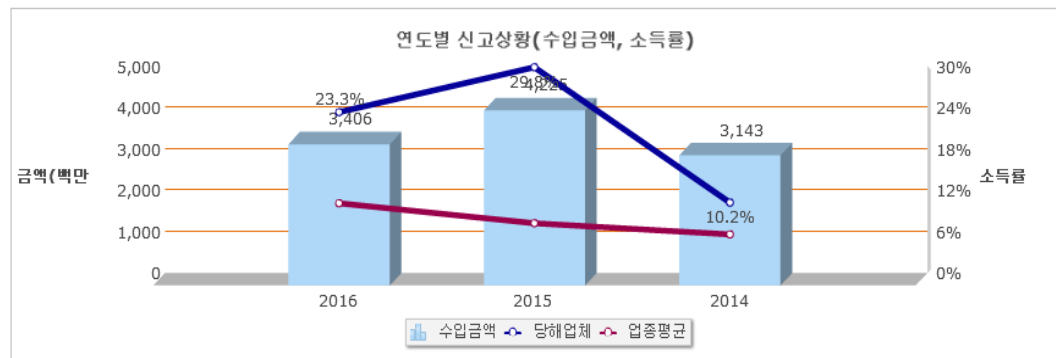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은 가급적 3월말까지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구분	내국법인	사업연도	2017. 01. 01 ~ 2017. 12. 31
법인종류	영리 기타 중소법인	주업종코드	312000
업 태	제조업	종 목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세 금 포 인 트	2355.00		

* 전년도에 신고한 기본사항입니다. 주업종코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연도별 신고상황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수입금액		3,406	4,225	3,143
당기순이익		696	1,080	295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794	1,258	322
공제감면세액		49	82	34
총부담세액		90	150	10
소득률	당해업체(%)	23.3	29.8	10.2
	업종평균(%)	10.1	7.2	5.6
매출 총이익률	당해업체(%)	52.3	56.5	43.6
	업종평균(%)	16.6	17.7	16.1
영업 이익률	당해업체(%)	20.9	28.5	10.0
	업종평균(%)	6.2	6.4	4.4

● Ⅲ. 2018년 신고서 참고할 자료

▶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17.1기	1,588	0	689	1
2017.2기	1,585	0	648	5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매출 금액

(단위 : 백만원)

기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금액 (공급대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공급대가)
2017년	2,868	2,868	0	0

* 위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신용카드결제대행금액 + 선불전자지급금액(구매전용카드 제외)

▶ 3. 2017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 41,735,443원 (일단위 결사)

* 가산세 제외 금액으로 기한후 신고, 결정·결정내역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4.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2016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당해업체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업종평균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복리후생비	79	2.3	0.6
접대비	29	0.8	0.4
광고선전비	2	0.1	0.1
차량유지비	29	0.8	0.2
지급수수료	20	0.6	1.1

*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업무사용비율,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5년 정액법 균등 감가상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2017년 사용금액)

(단위 : 백만원)

합계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업무무관 업무비용	개인적치료	해외사용액	
					2016년 총사용액	2017년 총사용액

* 2017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산분석된 자료로써, 실제 법인의 지출용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 의약품·기구, 화장품, 예술품 등 구입액

업무무관 업무 이용 : 스포츠 교육기관, 수의업, 오락장 등 사용액

개인적 치료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사용액

▶ 6. 지출증빙 수취현황

(단위 : 백만원)

①수취대상금액	②증빙수취금액	③차이금액	증빙수취비율(②/①)(%)

● IV.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	------

*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코드에 의함.

● V.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단위 : 백만원, 건, 명, %)

안내사항	안내내용
------	------

업무용승용차 취득·보유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이 의무화(정액법, 5년)되었고, '16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관련비용의 일정 금액(1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인정되나 사적관련비용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오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용승용차 내역 : 4대 2. 관련 총비용 : 91백만원
-----------------------------	---

● VI. 맞춤형 안내사항

계정과목명	유익할 사항
-------	--------

* 최근 3년간 신고내용을 전산 일괄 분석한 법인별 세무진단 내용으로 개별 법인의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VII. 결세 Tip

안내사항	안내내용
------	------

일정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중소기업이 2014.1Q 1. 이후 2017.6.3Q 까지 세법에서 정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2)
----------------------------------	--